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78호
2023.10.26.(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 【미국·EU】美, 철강협정(GSSA) 불발에 따른 '對EU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결정
- 【멕시코】멕시코 정부, 수출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발표
- 【EU】유럽의회 환경총,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Euro7 법안 채택

주요 산업별 이슈

- 【배터리】中,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흑연' 수출통제 발표
- 【반도체】美 반도체 규제 강화로 中 자국 내 시장점유율 확대...AI 기술은 위축 전망
- 【자동차】日 도요타, 6개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26일 전면 정상화

주간 이슈 포커스

- 【중동, 경제】중동 사태(이스라엘-하마스 분쟁)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원자재 뉴스 PLUS

- 【10.3주 원자재 동향】中, 코발트 3,100톤 추가 비축 계획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딜로이트,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리스크: 통합적인 공급망 실사를 통한 공급망 관리 필수

III. 공급망 소식통

- KOTRA, 2023 글로벌 공급망 포럼 개최
- KOTRA, 중동사태 애로접수 및 동향 안내
- 한국무역협회, 라쿠텐 활용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미국·EU

美, 철강협정(GSSA) 불발에 따른 '對EU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결정

- 📌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20일(현지시간) 미국과 EU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 실무협상에서 양측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다고 밝힘
- * 미국·EU 양측은 '22.10월 EU가 對美 수출 철강 등에 대한 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등 관세를 면제하고, 中 철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친환경 철강 생산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 추진
- ▶▶ 미국은 EU에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재부과를 협상용 위협 카드로 활용한 반면, EU는 미국에 관세의 영구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양측의 이견이 대립하면서 협상 결렬
- ▶▶ 양측의 협상 시한은 오는 10.31일로 협상 실패 시 '24.1.1일부터 미국의 對EU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재부과되며, EU도 對美 보복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전망
- 📌 그러나 미국은 연내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추가적인 협상 시한을 부여하고, '24년 부과될 예정인 관세를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EU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할 것으로 전망

출처: KBA Europe('23.10.23), 조선비즈('23.10.2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멕시코

멕시코 정부, 수출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발표

- 📌 10.12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전략적 산업부문에 대한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여 멕시코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자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발표
- 📌 10개 특정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23~'24년 2년간 연속 50% 이상인 경우, 수출 기업의 신규 고정자산 투자비 및 직원 교육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공제
- * 10개 특정분야: ①식품·사료, ②비료·농약, ③제약 산업, ④반도체·변압기 등 전자부품, ⑤의료 장비(측정·모니터링·제어 등), ⑥전기설비용 배터리·충전기·전선 등, ⑦자동차 엔진(트럭용 포함), ⑧자동차·기차·선박·항공기 부품, ⑨항공기 엔진·변속기, ⑩비전자 의료 장비·기기
- ▶▶ '23.10.12~'24.12.31일까지 신규 고정자산 투자금액에 대해 자산 종류에 따라 56%~89%에 해당하는 법인세(ISR) 즉시 공제 가능하며, 고정자산 투자기간은 '23.10.12~'24.12.31일까지, 교육비 지출 공제는 '25년까지 유지
- ▶▶ '23~'25년 3년간 특정 연도의 교육비가 '20~'22년 3년간 평균 교육비 대비 증가한 경우 교육비 증가분의 25% 추가 공제
- 📌 주로 既 진출한 제3국 수출기업이 대상이며, 우리 나라의 수혜 기업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다수는 전자·자동차 분야의 현지 진출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이 완제품을 최종 수출하는 구조로 전자제품(완제품) 및 완성차 생산·수출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출처: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종합

EU

유럽의회 환경토, 집행위 법안보다 약화된 Euro7 법안 채택

- 📍 10.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집행위 초안 대비 승용차·밴 배기가스 오염물질 규제를 완화하고 시행 기한을 유예하는 완화된 유로7(Euro7)* 기준 채택
 - * 유로7(Euro7): CO2 배출규제와 달리 배기가스 내 오염물질 입자별 배출량을 규제로 '92년 Euro 1을 시작으로 현재 '14년 제정된 Euro 6 적용 중이며, '35년부터 CO2 배출 규제 강화로 사실상 내연기관의 마지막 배기가스 규제로 전망
- ➡ EU 집행위는 '22.11월 강화된 배기가스 오염물질 규제* Euro 7 초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이사회·의회는 자동차 제조사 및 소비자 부담을 감안하여 집행위 초안대비 완화된 유로7 기준 채택
- 📍 유럽의회가 채택한 완화된 유로7(Euro7)에는 승용차·밴 배출기준을 완화하고, 상용차 범주 세분화 및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 포함
 -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유로7 법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승용차·밴 '25년→'30년, 대형 상용차 '27년→'31년으로 강화된 배출 가스 규제 시행 시기를 유예
 - ➡ 다만, 타이어·브레이크 패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제는 더욱 강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기준도 10년 후 최대 75%까지 원상 유지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의 경우 집행위 법안의 기준보다 강화

출처: KBA Europe('23.10.13), Euractive('23.10.16)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배터리

中,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흑연' 수출통제 발표

- 📍 10.20일(현지시간) 中 상무부·해관총서는 <흑연* 품목 임시수출통제 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고(高)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23.12.1일부터 수출통제 시행할 것임을 발표
 - * 흑연은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1개당 흑연 함유량은 20~30%에 달함
- ➡ 동 조치는 中 상무부가 '06년에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시행 결정」의 대상품목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
- ➡ 수출자는 성(省)급 상무 부처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수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무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승인 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수출허가증을 발급할 예정
- 📍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천연흑연을 '22년 기준 241백만불 수입하였으며, 이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
 - ➡ 이번 조치는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를 위한 절차가 추가된 상황으로서, 정부는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24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가동 및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추가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해갈 것"이라고 밝힘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10.20)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반도체

美 반도체 규제 강화로 中 자국 내 시장점유율 확대...AI 기술은 위축 전망

- 10.17일(현지시간) 미국이 강화된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中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 '23.1~8월 中 파운드리 기업의 전체 장비 입찰 중 47.25%가 현지 장비업체였으며, (3~4월) 36.3% → (7~8월) 62%로 지속 증가세

- SMIC·화흥 등 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외국산 장비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면서, 나우라·AMEC 등 현지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특히 AMEC의 일부 장비는 5나노미터 기술을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라인에 투입될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빠름
- 현재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중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은 반도체 기판에 회로 패턴을 넣는 리소그래피 자체 공정에 한계가 있어 관련 부품 수입은 네덜란드 ASML에 의존하고 있음
- 미국은 극자외선(EUV) 장비와 더불어 현재 일부 심자외선(DUV) 장비도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미국의 해외 위탁 생산 규제*로 인해 AI 개발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

*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이 거래제한 목록 기업의 수주를 받을 경우, 美 상무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적용하여 제재 가능

- 中 알리바바·바이두는 韓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서 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美 NVIDIA의 AI용 반도체를 대체해왔으나, 해외 위탁 생산 규제로 인해 中 AI 기업들은 기존 비축해둔 저수량 NVIDIA 반도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향후 비축량 소진 시 AI 기술 개발에 중대한 타격 예상

출처: 로이터통신('23.10.19), 파이낸셜타임즈('23.10.2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자동차

日 도요타, 6개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26일 전면 정상화

- 日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는 10.16일 발생한 부품업체 폭발사고로 일부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8개 공장의 14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음

-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은 여러 차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스프링으로, 부품 제조업체인 주오하쓰조(추오스프링)의 공장에서 건조 장치 폭발 사고가 발생해 도요타*의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

* 도요타 자동차는 '22.3월 부품 생산 거래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모든 공장의 가동이 멈춘 바 있으며, '23.8월에도 부품 발주 관련 시스템 문제로 일본 내 공장 14곳의 생산라인이 이틀동안 중단된 바 있음

- 닛케이신문은 아이치현 다카오카 공장 등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승용차 코롤라와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 등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日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요타가 10.24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던 공장들의 생산을 순차적으로 재개하였으며, 26일 마지막으로 남은 기후현 공장이 가동되면 모든 공장이 전면 정상화될 예정

출처: 조선비즈('23.10.17), 연합뉴스('23.10.2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중동, 경제

중동 사태(이스라엘-하마스 분쟁)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이스라엘 주요 수출 분야는 전자·방위산업 및 의약품이며, 현시점에서 중동 사태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

- ☞ 재닛 엘런 美 재무장관은 IMF 연차총회에서 중동 사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발언했으나, 일각에서는 확전 및 장기화 시 원유 등 에너지 가격상승과 첨단산업 공급망의 영향을 우려함
-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항구, 전자 및 의료: 이스라엘 분쟁의 공급망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분쟁 격화 시 물류 차질로 관련 분야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중동 사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 이스라엘은 동아시아 외 주요 첨단 반도체 산업 허브로서, 하이파·키랏가트* 등지에 설계·제조 시설을 운영 중인 인텔을 필두로 하여 엔비디아, 애플 등 연구센터를 운영 중 * 분쟁지역에서 약 25km 떨어진 키랏가트(Kiryat Gat)에는 인텔의 CPU 제조시설인 팹 28이 소재하여 생산차질 발생 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에 간접적 피해 가능성 有
물류	☞ 사태 확산에 따라 중동지역 해상물류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 가자지구 근접 항구인 아스돗(Ashdod) 항구는 현재 물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텔아비브를 통한 항공운송이 원활하지 않아 국제 공급망 차질 우려 - 이 중, 의약품 공급망이 물류 네트워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분석 -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상운송비는 아직까지 안정적이나 보험료 증가 및 운송업체의 전쟁위험 보험료 전가에 따라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원유	☞ 확전 및 장기화 시 원유 가격 오름세 가속화 및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 제한적 분쟁 단계에서는 사우디·UAE의 원유 증산 협조 시 세계 경제 영향 최소화 가능 - 인근지역 교전 확전 시,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가중, 원유 가격 인상 등 세계 경제 침체 야기 가능성 존재

중동 사태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여파 분석

시나리오	전망	원유 가격 및 VIX 지수 영향	세계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영향
① 제한적 분쟁 가자 지구 공격 이란 원유 감산	- '14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미국이 이란 대상의 원유 수출 제재 강화 - 사우디·UAE의 원유 증산 협조 시 세계 경제 영향 최소화 가능	(원유) 배럴당 +\$4 (VIX) 변동 없음	(GDP) △0.1%p (인플레이션) +0.1%p
② 인근 지역 확전 서안, 레바논, 시리아에서 교전 중동 지역 정국 불안정	- 이스라엘 교전 대상이 레바논·시리아 무장 단체로 확대 시 원유 가격 10% 인상 전망 - 튀니지·이집트·레바논 등 주변 국가의 소요 사태 촉발 가능,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금융시장 불안 가중	(원유) 배럴당 +\$8 (VIX) +8포인트	(GDP) △0.3%p (인플레이션) +0.2%p* * 각국 긴축 통화정책 전망
③ 전면전 돌입 이스라엘과 이란 전면 충돌 중동 지역 정국 불안정	- '73년 석유 파동만큼은 아니지만, 원유 가격이 배럴 당 150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음 - 전세계 원유의 1/5이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 확전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원유) 배럴당 +\$64 (VIX) +16포인트	(GDP) △1.0%p (인플레이션) +1.2%p

출처: 블룸버그 Economics, U.S. Daily Briefing('23.10.17)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중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넵

희소금속

中, 코발트 3,100톤 추가 비축 계획

中 국가식량전략비축국이 코발트 비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코발트 공급업체 5곳과 협의를 거쳐 3,100톤 규모의 코발트 추가 비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中 당국은 코발트 비축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으나, 아-팔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속 코발트와 같은 전략광물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 (단, 中 비축 품목은 동·알루미늄·아연·코발트 등이며, 비축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음)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3주)

◆ [비철금속] 美 달러 강세, 中 부동산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인한 가격 하방 압력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9월	전년비(%)	10.2주	10.3주	전주비(%)
동	8,797	8,588	△2.4%	7,951	7,906	△0.6%
니켈	25,605	22,938	△10.4%	18,380	18,345	△0.2%
아연	3,478	2,699	△22.4%	2,444	2,413	△1.3%

* 자료원: LME

(동) 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中 부동산 경기지표 부진으로 동 시장의 수급긴장 완화로 인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 美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거래소의 동 재고량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점도 가격 하방요인으로 작용

(니켈) 美 달러화 강세 지속에 따른 위험자산 기피 확산 및 中 부동산 경기불안으로 니켈시장 하방압력 발생

- » 주요 거래소의 니켈 재고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점도 하방요인으로 작용

◆ [철강] 中 주요항구 재고량 감소에 따른 철광석 가격↑, 그 외 품목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9월	전년비(%)	10.2주	10.3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86.32	△46.6%	147.89	145.69	△1.5%
원료탄	364.99	282.53	△22.6%	365.00	353.10	△3.3%
철광석	120.26	115.90	△3.6%	116.34	119.69	2.9

* 자료원: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철광석) 中 주요항구 철광석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철광석 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했으나, 세계 철강수요 둔화 전망으로 상기 상승압력은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분석

(유연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공급 리스크 확대에 10.3주차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88.75달러로 전주대비 1.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연료탄 가격은 전주대비 1.5% 하락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0월 3주)

◆ [희소금속] 中 타이트한 공급 상황 지속, 공급업체 오퍼가 상승 등으로 일부 광종 가격 상승압력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9월	전년비(%)	10.2주	10.3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300	△16.2	1,195	1,195	-
탄산리튬	72,290	41,479	△42.6	22,883	23,560	3.0
수산화리튬	67,180	42,343	△37.0	20,363	20,743	1.9
코발트	31.20	17.95	△42.5	17.45	17.64	1.1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17,720	△16.5	371,700	368,700	△0.8%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81,279	△39.2	74,300	73,500	△1.1%

* 자료원: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페로망간)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되나, 제한된 해외 수요로 中 수출가 변동 없이 유지
- 📌 (탄산리튬) 주중 초반은 양극재 분야 원료확보 수요와 공급업체의 오퍼가 상승 기조로 가격상승이 이어졌으나, 주 후반부터 수요업체의 구매 관망세 전환으로 가격 하락
 - ▶ 수산화리튬 가격은 탄산리튬 가격과 함께 주중 등락을 보였으며, 中 내수가 대비 수출가가 높은 상황으로 수출 물량에 집중
- 📌 (코발트) 中 국가비축국(SRB)의 신규 코발트 금속 비축 계획 소식에 中 공급업체들 판매가 상승
 - ▶ 유럽 시장가도 中 가격 상승에 따라 소폭 상승했으나, 실수요 문의는 저조
- 📌 (희토류) 제한된 영구자석용 금속생산 수요 속 산화디스프로슘, 산화네오디뮴 가격 소폭 하락

◆ [에너지] 불안정한 중동 정세, 美 원유 재고량 대폭 감소에 따른 수급 우려로 유가 상승 압력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9월	전월비 등락폭	10.2주	10.3주	전주비 등락폭
두바이유	96.41	93.25	6.79	87.98	91.80	3.83
브랜트유	99.04	92.59	7.48	87.70	91.12	3.42
WTI	94.33	89.43	8.10	85.29	87.95	2.66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국제 유가) ▲불안한 중동 정세(이스라엘-하마스 충돌), ▲美 원유 재고량 대폭 감소에 따른 석유 수급 우려, ▲美 연준 의장 발언 및 中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공급망 더 알아보기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리스크: 통합적인 공급망 실사를 통한 공급망 관리 필수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A ESG 그룹 임소현 부장

자동차 산업은 Covid-19, 반도체 수급난 및 공급난 문제로 자동차 생산·판매 수치가 2020년 급감했다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및 정치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전쟁 등의 정치적 갈등, 더 나아가 금리인상 중단 조짐 및 유가하락 등의 경제적 불안요인들로 하여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EU와 미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ESG 관련 규제들은 사회적 변화의 전초전을 앞두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전쟁으로 와이어하네스 등 특정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알루미늄·구리·강철·리튬·니켈 등 주요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자동차 공급망에 큰 차질이 자주 발생하면서 공급망 안정화·회복성·다변화가 통상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자동차 시장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 혹은 전환을 위한 비용은 비단 자동차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밀단(Upstream)을 이루고 있는 부품 공급업체에게도 상당 부분 전가되고 있다. 특히, 부품 공급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큰 환경적 조건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소규모 영세 공급업체의 경우 OEM을 상대로 한 협상력이 낮아 현재의 추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대기업인 글로벌업체의 OEM 기업들보다 부품 공급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내외부 리스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재무 성과와 실적을 보이고 있어 OEM사와 중소·중견기업간의 재무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딜로이트에서 발간한 ‘2023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리스크 모니터’ 연구 리포트를 기반으로 자동차 공급망 내 부품 공급업체들의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당면한 내부 및 외부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전세계 769개 부품 공급업체의 리스크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3가지 외부 리스크 항목(▲시장 구조 및 압력, ▲규제 및 사회 환경, ▲미래 시장 관련성)과 내부 리스크 항목(▲현금흐름 창출 능력, ▲부품의 시장 적응력 및 혁신 역량, ▲신용도)을 기준으로 19개의 부품군을 정의하여 각 부품군별 평가를 실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외부 리스크란 현재 혹은 미래의 기업 상황에 있어 불가피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 요인으로 정의되며, 이는 대부분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향력 밖에서 작용한다. 내부 리스크란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악화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정의한다. 외부 요인에는 특정 부품군에 속한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만, 영향의 정도는 각 기업이 처한 내부 리스크에 따라서 상이하다. 이 3가지 외부 리스크는 14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 리스크는 11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내외부 리스크를 기반으로 19개의 부품군을 평가한 결과, 가장 리스크가 높은 부품군은 내연기관·프레임·변속기·

배기장치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의 장기적 감소와 ESG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시장 성장성이 저조한 실적과 맞물리면서 내연기관이 특히 외부 리스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축과 프레임은 타 부품군에 비해서 수익이 낮고,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워 재무상황의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부 리스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품으로 나타났다. 시장 적응력 및 혁신 역량, 신용도, 현금흐름 창출 능력, 매력적인 시장 환경 그리고 투자자들의 M&A 거래 비중이 높은 부품군은 ADAS-센서와 전기 구동계로 자동차 공급망 중 가장 리스크가 낮았다. 이들은 특히 특허 건수도 다른 부품군에 비해 많으며, 높은 혁신 역량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 그리고 탄탄한 재무구조와 재무상환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신용도 리스크가 낮아 금융기관들도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게 책정하였다.

이처럼 내외부 리스크가 부품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ESG 규제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부품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안과 보조금 지급 리스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품군인 차체·고전압 배터리·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고 전체 신용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외부 리스크가 높게 책정되었다. 반면, 고전압배터리·연료전지 관련 부품군은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기업가적 활동이 적을 뿐 아니라 IPO 대상으로도 매력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리스크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부품군 리스크 지도〉



달로이트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리스크 범주를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미래 인플레이션 압력 대비, 엄격한 비용관리 및 효율성 개선 등 기존에 흔히 제안되는 리스크 완화 성격의 조치가 아닌, 다음과 같이 4가지 사업을 지속하고 과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리스크가 높은 부품군은 ‘위기 진화’가 중요하다. 이는 성과가 악화된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해당 사업을 완전 철수하는 방향 혹은 사업구조 재편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리스크가 낮은 부품군에는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확보를 통해 시장 지위를 보호하고, 전후방산업과의 합병을 검토하는 ‘사업 지속’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내연기관과 같이 외부적 리스크가 높은 부품군에는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 실행 및 완전히 다른 부품군에 투자하는 방식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제시한다. 차축 등 내부적 리스크가 높은 부품군의 경우, **‘구조조정’**을 제시한다. 해당 방안은 경쟁업체·공급업체와 협업, 시장전망이 양호한 상태에서의 사업 매각을 통해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본 분석에 따르면, 전통적 기술 기반 부품 공급업체 대부분은 ‘구조조정’ 사분면에 위치해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내부적으로 긴밀한 대응을 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와 통신이 연결되고, 전동화·전기화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기반 운영이 가속화되었으며, 배터리·차전지와 ESS, 에너지와 건설·건축이 연결되면서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특정 짓기가 점점 무의미해질뿐만 아니라 공급망 추적·관리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순환경제와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엄격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의 범주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과 원자재가 연결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즉 전 가치사슬에 대한 환경, 인권·노동 및 투명성에 대한 실사 준비를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환경·기후 리스크 관련해서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목표 및 세부 이행 전략 수립이 시급해졌으며, 전력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특성상 폐수·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순환 경제 관점에서의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원료·원자재 수급 시 **‘책임 있는 소싱(Responsible sourcing)’**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 있는 소싱’을 위해 분쟁광물 조달 제한과 대체 원재료 수급 등을 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특히 **개발도상국 또는 영세한 기업일수록 투명성과 인권·노동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안전·보건을 고려한 공급망 관리를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침 수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업의 구매 정책 또는 공급망 관리의 비용과 품질 관련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에 더 나아가 **환경·인권·노동·안전 및 보건 이슈까지도 포함**되어 공급망 내 기업간 압박이 가해지고 이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을 공급망 관리에 있어 더욱 투명하고, 환경·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식하고,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실사를 통한 리스크 완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내외부 리스크에 따른 불안정한 산업 변화는 내연기관 관련 기업들에게 위협을 가해 도태하게 만들 수 있으나,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유통 및 다양한 자동차 소비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모빌리티 기업네트워크(공급망)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해준다. 따라서, **자사의 공급망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파악 및 추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공급망 실사를 위해 공급망 내 기업들의 통합된 플랫폼 안에서 일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동차 업계의 대표적인 공급망 실사 항목으로는 1)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관리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2) 폐기물 및 폐수관리를 통한 순환경제, 3) 안전과 보건, 4) 책임 있는 소싱, 5) 노동 및 인권, 6) 공급망 구성 및 기업운영의 청렴·반부패 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윤리’**가 있다. 이 6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각각 ▲이를 관리하는 조직·담당자의 보유여부, ▲관리 지침 및 정책 수립 여부, ▲관리 또는 개선 목표 수립 여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 수립,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위험파악, ▲법·규제 준수 여부, ▲공시 여부에 대한 7개의 세부 항목을 기반으로 실사 및 공급망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망 소식통

2023 글로벌 공급망 포럼 개최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최근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고, 미중 패권경쟁, 중국 수출통제 등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생생한 국내외 공급망 이슈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23 글로벌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3.11.16(목) 14:00~17:20 /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 주제 : 핵심산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리스크 관리'
- » 참석대상 : 국내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별 협단체 등 200명 (선착순 마감)
- » 프로그램 : 공급망 포럼, 공급망 컨설팅 부대행사 추진

◆ 세부 프로그램 * 동시통역 지원 예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05)	개회사			KOTRA
14:05-14:10('05)	축사			산업부
14:10-14:40('30)	[Keynote] New US Export Controls and Their Impacts on Global Supply Chain			Akin Gump (前 미국 상무부 차관보)
14:40-15:10('30)	[배터리] Shifting Battery Supply Chai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loombergNEF
15:10-15:40('30)	[자동차] 북미 자동차 OEM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 및 밸류체인 요구사항			General Motors
15:40-16:00('20)	커피브레이크			
16:00-16:30('30)	[반도체] 반도체산업 공급망 재편 동향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도전과 기회			산업연구원
16:30-17:00('30)	[ESG] 글로벌 공급망과 ESG, 사례로 보는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관리			딜로이트
17:00-17:20('2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소개 및 사업 안내			KOTRA
부 대 행 사	무료 컨설팅관 운영 (12:00-15:00)			
	KOTRA 컨설팅관	공급망 ESG 컨설팅관		
	소부장 공급망센터 홍보관	딜로이트 쏫-컨설팅1	딜로이트 쏫-컨설팅2	딜로이트 쏫-컨설팅3

※ 참가 신청은 우측 하단 QR코드 참고

◆ 포럼 문의

- » 관련 문의 :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 02-3460-7764)



중동사태 애로접수 및 동향 안내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KOTRA는 최근 중동사태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중동사태 애로접수 및 동향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동사태 관련 애로 상담 및 애로 해소를 위한 대체 거래선 발굴 지원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애로 상담 ▶ 최근 중동사태 관련 기업 애로 상담

» 접수방법: ☎1600-7119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4번(중동)을 누르시면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통합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kotra.or.kr/subList/20000006014> 클릭

● 지원 사업 ▶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대체 거래선 발굴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중동 사태로 인해 對이스라엘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관세청 통계 기준, '22~23년 對이스라엘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중동 지역 국가 한정,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서비스 2회 무료 지원

* 기존 이스라엘 거래선을 대체할 수 있는 중동 소재 국가의 신규 거래선(2~3개사) 발굴

서비스명	지원내역	서비스 수수료(VAT 별도)		신청하기
		기존	변경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신청기업 제품에 관심 있는 바이어 발굴 2~3개사	건당 30만원	무료	바로가기

» 중동사태 관련 뉴스 확인: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1490

라쿠텐 활용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코로나 이후 글로벌 e-Commerce 동향을 점검하고, 라쿠텐 활용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모색하고자 한국무역협회와 라쿠텐 공동으로 라쿠텐 활용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수출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라쿠텐 활용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요

- » 일자 : '23.11.17(금) 14:00-16:00 (2시간)
- » 장소 :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참석자 : Kmall24 회원사 및 e-Commerce 업체 등 약 150명
- ※ 한국 기업의 경우 '법인 사업자'만 입점 가능
- » 주제
 - 일본 e-Commerce 시장 트렌드
 - 라쿠텐 그룹 및 라쿠텐 이치바 소개
 - 일본 e-Commerce 판매 트렌드와 사례
 - 라쿠텐 입점 방법
- » 모집기한 : '23.10.10(화)~'23.11.16(목)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모두 말씀	KITA 글로벌협력본부장
14:05-14:35	• 일본 e-Commerce 시장 트렌드 • 라쿠텐 그룹, 라쿠텐 이치바 소개	라쿠텐
14:35-15:25	• 일본 e-Commerce 판매 사례 등	
15:25-15:35	• 라쿠텐 입점 방법	
15:35-16:00	• Q&A	-
16:00	행사 종료	-

※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 참고

📌 세미나 및 상담회 문의

- » 관련 문의 : 플랫폼마케팅실

글로벌 경제지표 (23.10.25.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9말	10/23	10/24	10/25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349.30	1,353.70	1,343.10	1,349.70	△0.30%	6.74%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347.30	1,351.60	1,340.80	1,347.00	△0.34%	6.46%
₩/CNY	186.51	181.44	184.64	185.00	183.77	183.94	△0.57%	1.38%
₩/¥100	1,032.48	945.56	904.78	902.95	897.73	900.82	△0.24%	△4.73%
Y/US\$	115.14	133.73	149.13	149.92	149.61	149.83	△0.06%	12.04%
US\$/EUR	1.1318	1.0617	1.0563	1.0574	1.0683	1.0602	0.26%	△0.14%
CNY/US\$	6.3681	6.9630	7.3028	7.3173	7.3052	7.3118	△0.08%	5.01%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304.8 (₩/¥100) 941.2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0.23(전일)	'23.10.24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92.34	90.49	△1.9 △2.0%	18.7 26.0%	11.7 14.9%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15.55	118.55	3.0 2.6%	39.1 49.1%	1.2 1.0%
비철 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7,824.50	7,900.50	76.0 1.0%	900.5 12.9%	△486.5 △5.8%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44.50	2,146.50	2.0 0.1%	66.5 3.2%	△214.0 △9.1%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8,135.00	17,800.00	△335.0 △1.8%	△1300.0 △6.8%	△12625.0 △41.5%

반도체

	'21	'22	'23.7월	'23.8월	'23.9월	10/20	10/23	10/24	10월(~2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3.99 29.9%	3.07 △23.0%	1.49 △52.1%	1.46 △47.2%	1.48 △41.3%	1.57 △29.5%	1.57 △28.7%	1.57 △28.1%	1.54 △36.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55 14.7%	7.25 10.7%	6.31 △7.7%	6.32 △3.8%	6.32 △3.8%	6.41 △2.1%	6.41 △2.1%	6.42 △2.0%	6.40 △2.6%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9.22	9.29	10.13	10.20	전주비(10.13)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11.71	886.85	891.55	917.66	2.9%	△17.1%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0.18	10.19	10.20	10.23	10.24	전일비(10.23)	'22년말비
BDI	2217	1515	2058	2071	2046	2017	1949	△3.4%	28.6%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피드백하러 가기

<https://moaform.com/q/MvDmch>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